

#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유형들의 견주어 읽기\*

- 루마니아에서 동북아시아, 그리고 한국으로-

박 종 성\*\*

## 차 례

- |                                 |  |
|---------------------------------|--|
| I. 머리말: 논의의 착점                  | IV. <Soarele și luna>를 통해서 東北亞<br><男妹日月起源傳承> 類型 읽기 |
| II. 자료 소개                       | V. 마무리: 포괄적 검토와 가설적 체계                             |
| III. <Soarele și luna>의 몇 가지 특징 |  |

## I. 머리말: 논의의 착점

천지만물이나 인간의 창조에 관한 내력을 설명하는 신화와 서사시 혹은 발라드는 다채로운 내용으로 전승집단의 세계에 대한 인식의 한 단면을 드러낸다. 그 인식의 양상은 전승집단마다 다를 수 있어 개별성이 인정되지만,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있고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지 않았던 민족들 사이에서 相同的 측면이 뚜렷하게 확인되기도 한다. 이 글에서 다루게 될 루마니아의 日月起源에 관한 민속시가는 男妹婚과 연결되어

\* 이 논문은 2005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집필되었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있어 특별한 양상을 띤다. 그런데 男妹婚과 관련한 신화와 구비서사시는 특별하게 동아시아 일대에 강한 傳承力을 지니고 있어 루마니아의 사례와 비교하고 대조하는 관점이 성립된다.

루마니아의 사례가 특별하게 관심을 끄는 것은 일월기원에 관한 내력담이 남매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동아시아에서 남매혼의 추이가 대체로 인류의 기원 또는 재창조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겠는데, 루마니아의 경우는 인류의 재창조와 연계되어 나가다가 중단되고, 남매혼의 禁忌를 違反한 결과로서 일월의 생성이 나타나 신화적 측면에서 예사롭지 않은 변천의 과정을 거쳤다고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루마니아 남매혼 전승 유형(Type)에는 다양한 각편(Version)들이 존재한다. 본격적인 탐색은 각편들을 포괄하여 남매혼 전승의 양상과 변천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동북아시아의 사례와 견주어 전승과 변천의 양상에 관한 일반론 성립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다만 이 글에서는 전체적인 틀을 試論적으로 제시하는 데에 우선의 목표를 두고 논의를 전개한다. 대상 자료의 편폭을 확장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後稿를 기약한다.

## Ⅱ. 자료 소개

<Soarele și luna : 해와 달의 유래><sup>1)</sup>

돌아다녔다, 오빠인, 사랑스런 태양이/돌아다녔다, 오빠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아홉 해 동안/아홉 마리의 말을 타고

밤에는 천국에서 풀을 뜯어 먹이며,/하늘과 땅을 돌아다녔다

1) 이 발라드의 원제는 <Soarele și luna>이며, 바실레 알렉산드리 (Vasile Alecsandri)의 ‘루마니아 민속시 (Poezii populare ale românilor, 1965)’에 수록된 원작을 번역 대상으로 한다.

화살처럼, 바람처럼,/하지만 모든 말들은 지쳐갔고  
마음에 드는 여자는 발견하지 못했다.  
그의 누이 일레아나처럼/일레아나 코سن제아나,  
태양조차 없는 한 겨울에 핀/꽃처럼 아름다운.  
- 나의 누이, 일레아나/일레아나 코سن제아나야!  
우리 둘이 약혼을 하자/우리 둘이 가장 잘 어울리지,  
머리타래도, 얼굴도/매혹스런 아름다움조차도.  
나는 빛나는 머리타래를 가지고 있고/너는 금빛 머리타래를 가지고  
있다;

나의 얼굴은 달아올라 있고/너, 너의 얼굴은 위안이 되지.  
- 아! 원죄 없는 순수한 몸,/눈부신 나의 오빠,  
남매끼리 결혼하는 일은 /이 세상에 결코 존재하지 않아.  
너는 너의 하늘에서 너의 일을/나는 나의 땅에서,  
태양은 의기소침해졌고/위로, 하느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갔다,  
하느님께 성호를 그린 후/입을 열어 물어보았다:  
성스러운 하느님/아버지!/나에게는 시간이 되었어요./결혼할 때가,  
일레아나 코سن제아나,/나의 누이 일레아나처럼/마음에 드는 여자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성스러운 하나님은 그의 말을 들었다/그리고 손으로 그를 잡아  
지옥을 보여 주었다,/단지 겁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천국을 보여 주었다/단지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후 하느님은/엄숙한 목소리로 이르셨다.  
하느님이 말하는 동안/세상은 이치를 깨달았고/다정하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하늘은 청명해지고/밝은 구름이 나타났다:  
- 태양아, 빛나는 태양아./원죄 없는 순수한 몸아,/너는 천국을 보았고  
또 지옥을 보았는데/너의 생각은 너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 나의 영혼이 말합니다./혼자만이 아니라면/일레아나 코سن제아나,/일  
레아나와 함께라면

영원한 지옥을 선택하겠노라고!/태양은 하강하기 시작하여  
그의 누이한테서 멈추었다./성대한 결혼식을 준비하였고/일레아나를  
치장하였다,

신부의 꽃잎으로/값비싼 보석을/츄츄히 박은 드레스로.

그런 후 자랑스럽게도, 그와 그녀는/교회로 발걸음을 옮겼다.  
막 결혼식을 올리려는 순간/불쌍한 태양 그리고 가엾은 그녀!  
죽음과도 같은 한기가 그들을 엄습해왔다,  
한 거대한 손이 그녀에게로 뻗쳐/그녀를 위로 번쩍 들더니/저 바다  
속으로 내쳤다!  
물결이 크게 일어,/물결이 그녀를 덮치자,/그녀는 잉어로 변했다.  
태양은 높이 솟았고/서쪽으로 계속해서 기울어/바다 속으로 몸을 담  
갔다,  
그의 누이 일레아나에게로./일레아나 코스제아나에게로.  
그러자 성스러운 하느님./전능하신 하느님이  
물결 사이로 손을 넣어/손으로 잉어를 잡으신 다음./하늘로 내던졌다,  
보름달로 변하도록./그런 후 하느님은/엄숙한 목소리로 이르셨다.  
하느님이 말하는 동안/세상은 겁을 먹었고./바다는 웅크렸으며,  
산은 떨었고./하늘은 캄캄해졌다.  
- 너, 일레아나 코스제아나야./흠 하나 없이 순수한 영혼아,  
그리고 너, 빛나는 태양아./원죄 없는 순수한 몸아!  
두 눈으로 보아라./너희들이 항상 떨어져 있는 것을.  
밤에는 한없는 그리움으로/꺼지지 않는 열정에 휩싸인 채./영원히 서  
로를 뒤쫓는다,  
하늘을 끝없이 순환하며./이 세상에 빛을 비추면서! <김정환 譯>

루마니아에서 해와 달의 유래를 설명하는 신화는 단형 발라드의 형태로 전승된다. 男妹婚의 禁忌라고 하는 사회적 장벽을, 하느님을 등장시켜 견고하게 설정하여 禁忌違反의 결과, 신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했다. 그런데 금기위반의 결과가 해와 달이 되었다고 설정함으로써 인간 세상에 日月이 生成되었다고 하는 긍정적 의미를 띠게 하여 천지창조의 한 방식을 특별하게 노래했다.

한편으로 해와 달이 된 오누이가 영원히 서로를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運命을 맞이했다고 함으로써 禁忌違反의 결과가 비극적 의미를 띠게 하는 이중의 설정을 해놓았다. 日月의 由來와 관련하여 男妹가 등장하고 男妹婚의 標識가 잠재되어 있는 사례는 루마니아만의 개별성이라 하기

어렵고, 中國 內 少數民族의 신화와 서사시에서도 흔히 산전되는 것이어서 보편성을 띠는 것이지만,<sup>2)</sup> 특별하게 남매혼 금기를 위반한 결과가 일월의 생성에 잇닿아 있어서 같고 다른 점이 선명하게 부각된다.

### Ⅲ. 〈Soarele și luna〉의 몇 가지 특징

<Soarele și luna〉에는 신화 혹은 서사시 전승의 다양한 神話素들이 함축적으로 제시되고 있어 자료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男妹婚과 日月生成의 起源 못지 않게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神話的 標識들을 내포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 양상을 간추려 아래에 제시한다.

- ① 太陽인 오빠가 인간 세상에 배필을 얻기 위하여 人物推尋을 다니다.
- ② 누이와 결혼하려 하기 위하여 신의 권위에 도전하다(懲治를 감수하려 하다).
- ③ 남매혼이 성립되지 못하고 실패하다.
- ④ 금기위반의 결과, 누이가 신에 의하여 바다 속의 잉어가 되었다가 다시 하늘의 달이 되다.

#### 1. 天父地母의 結緣을 위한 人物推尋

태양인 오빠가 配匹을 구하기 위하여 인간 세상에 人物推尋을 다니는 양상, 그리고 태양인 오빠가 인간 세상에 하강하여 누이와 결혼하고자 한다는 설정은 한국 창세서사시와 건국신화 곧, 태양신의 人世降臨과 人世의 女人과의 結緣, 그리고 建國始祖나 英雄, 그리고 인간 세상의 특별

---

2) 남매혼과 관련하여 한국과 중국 내 소수민족의 사례를 검토한 것으로 拙著, 『구비문학, 분석과 해석의 실제』, 도서출판 月印, 2002의 ‘창조의 신화, 전설의 비극’이 있다.

한 神의 出現이라는 서사적 전개와 크게 다르지 않는 양상을 집약적으로 노래하는 사례로 판단된다. 한국의 事例 하나를 든다.

천지왕이라 하신 양반 금세상에 강림하사/마지왕과 배필을 무어서 잇  
다가/

하날로 올라가신 후로 마지왕이 잉태되야/대별왕 소별왕 양도령이 소  
사났습니다<sup>3)</sup>

(박봉춘 구연 <초감제> 중에서)

턴하궁 당칠성이 디하궁당 날여와서/가구격간 인물추심 단이실제/  
(중략)

갈곳이 전혀업서/한곳을 바라보니, 난데없는 불빛이 보이거늘/  
들으랑이 들오보고, 살피랑이 살펴보와라/ 불이 어인 불이냐?/  
민화부인의 집이로소이다/ (중략)

자리업시 한자리, 버기업시 한버기/그날밤을 류식할때, 자리동품 하  
실적에<sup>4)</sup>

(이종만 구연 <시루말> 중에서)

<초감제>나 <시루말>은 창세의 내력을 길게 노래하는 한국의 대표적 무속서사시에 해당한다. 창세의 주역신이 창세의 과정을 거쳐 인간 세상에 내려와 인세의 여인과 결연하여 인간 세상에 절실한 신을 생산하였다고 하는 내용이 創世敍事詩이면 어디든지 전한다<sup>5)</sup>.

<Soarele și luna> 역시 태양인 오빠가 인간 세상에 배필을 찾아다니는 양상이 나타나기에, 천부와 지모의 결연이라는 신화적 설정이 확인된다고 하겠다. 태양인 오빠가 天父의 속성을, 누이가 地母의 속성을 지녔음은 “너는 너의 하늘에서 너의 일을/나는 나의 땅에서”라는 부분에서도

3) 적송지성·추엽옹 『朝鮮巫俗の研究』(上), 조선총독부, 1937.

4) 위의 책.

5) 한국의 창세서사시에 관해서는 拙著, 『한국창세서사시연구』, 태학사, 1999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바 있다.

확인 가능하다.

한편 “태양은 하강하기 시작하여/그의 누이한테서 멈추었다./성대한 결혼식을 준비하였고”라는 구절은 흡사 日照感孕의 神話素를 연상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다. 한국의 東明王과 고대 서나라의 徐偃王의 탄생담에 보이는 日照感孕으로 인한 誕生 神話素가 역시 확인되어 신화소의 보편적 형성과 전승을 짐작하게 한다.

男妹婚의 양상이 天父와 地母의 結緣에 이어져 있어서 남매혼이 성립되었을 경우, 천부지모의 결혼에 이은 영웅의 출현이라는 신화적 틀에 상응하는 하나의 전승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그런데 태양인 오빠와 인간 세상의 누이는 그 설정 자체가 자연스럽지 않다. 오누이가 함께 하늘에 거하거나 인간 세상에 거한다고 설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하늘과 땅이라는 공간적 격리를 설정한 이면에 해와 달이 오누이의 관계라고 하는 관념이 이 노래에 수용된 결과로 보인다. 해와 달을 오누이의 관계로 인식하는 관념은 동북아시아 신화와 서사시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되는 바여서 <Soarele și luna>의 오누이가 공간적으로 격리되어 있다는 설정 자체가 해와 달을 오누이로 인식하는 관념의 소산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 관념이 있어서 천부와 지모의 결연이 남매혼으로 이어져 결국 해와 달을 생성하는 내력으로까지 서사적 전개가 이어질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 2. 男妹婚 禁忌 違反과 새로운 創造

‘하느님’의 존재와 남매혼의 禁忌, 그리고 ‘地獄(煉獄)’의 설정은 이 노래가 後代的 變遷을 거듭한 결과임을 말해준다. 이 노래에서 하느님을 지칭하는 용어는 ‘Dumnezeu’로 나타나거니와 이 용어는 ‘dumnezeu’ 곧 소문자로 시작하는 또 다른 신을 지칭하는 용어와 辨別의인 의미를 갖는다. 前者는 일종의 唯一神을 지칭하는 것으로 루마니아 정교의 唯一神에 상응하며 단수형만 가능한 것이고, 後者는 민간신앙에서 신앙의 대상

이 되는 여러 신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복수형이 가능하다. 결국 <Soarele și luna>에서의 하느님은 루마니아 정교의 유일신으로 이른바 중세보편종교의 영향을 받은 양상으로 이해된다.

인간이었던 여성이 잉어가 되었다고 하고, 바다 속의 잉어가 달로 거듭 변화했다고 한 점은 달의 속성을 여성적 원리에 견주는 관념의 결과일 뿐 아니라 또 다른 신화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남매혼의禁忍를 위반한 두 존재에 대한懲治의 결과가日月生成의 기원인 점이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더하여 “너, 일레아나 코스제아나야,/흠 하나 없이 순수한 영혼아,/그리고 너, 빛나는 태양아,/원죄 없는 순수한 몸아!”라고 하여 징치의 대상이 된 오누이에 대한 찬사가 예사롭지 않다. 절대적인 신의 금기를 위반한 오누이에게 이와 같은 찬사가 덧붙는 이면에 오누이와 연결되는 특별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을 개연성이 감지된다. 일월의 생성과 오누이의 금기위반, 그리고 오누이에 대한 찬사는 서사적 전개와 논리에서 일탈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文面의 齟齬한 양상은 行間에 특별한 함의를 지닌 경우이기에 주목을 요한다.

해와 달의 생성에 관한 내력은 새로운 창조를 노래하는 것이어서 징치와 새로운 창조 사이에 개재해 있는 의미의 두 층위를 짚어볼 수 있게 한다. 우선 누이가 바다 속에 幽閉되고 잉어가 되었다고 하는 설정에서 그 하나를 살필 단서가 마련된다. <바다 속에 幽閉되어 잉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의심할 바 없이 금기위반의 결과로 감당해야 할 應報이니 곧, 육체의 幽閉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應報(懲治)의 결과가 지속되어야 신의 위엄이 유지될 수 있으나, 오빠인 태양이 누이를 찾아 바다 속으로 다가서니 보다 근본적인 懲治의 방식이 필요했다고 볼 수 있다. 달로 만들어 영원히 태양과 함께 있지 못하도록 하는 영원한 隔離가 징치의 결과를 지속시키는 최종적 수단이 된 셈이다.

그런데 징치의 결과를 永續시키는 방식이 인간세상의 질서를 확정하는 긍정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서사전개의 논리에서 상치하는 점이

확인된다. 인간세상의 여인이 바다 속의 잉어가 되었다가 하늘의 달이 되었다고 하는 징치의 과정에서 우리는 이 노래의 이면에 깊숙이 잠재되어 있는 신화적 의미, 곧 ‘육체의 윤패와 영혼의 귀환’이라는 하나의 상징 체계를 떠올릴 수 있다. 금기를 위반한 죄에서 속죄에 이르는 과정을 통하여 ‘죄의 노예’에서 ‘유일신(하느님)의 종’으로 거듭나는 양상이 이 노래에서 看取할 수 있다. 이른바 ‘거듭남의 체험’인 셈이다.<sup>6)</sup> 징치의 대상에서 신의 섭리를 인간 세상에 구현하는 존재로의 전환은 인간 세상에 해와 달이 온전하게 갖추어져 해와 달이 순환하는 질서가 생겨난 내력을 설명하는 곳으로 나아간다. “너, 일레아나 코스제아나야,/흠 하나 없이 순수한 영혼아,/그리고 너, 빛나는 태양아,/원죄 없는 순수한 몸아!”와 같이 남매에 대한 일련의 찬사는 이런 관점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해와 달이 되어 인간세상의 질서를 구현하는 존재가 됨으로써 남매혼 금기 위반의 ‘흠’이 제거되었음을 의미하고(흠 하나 없이) 나아가 “순수한”이라는 어휘와 결합하여 의미의 연합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폴 리콤프의 아래 진술은 이런 관점에서 음미할 만하다.

그리스를 보면, 흠의 제거라는 뜻인 카타로스καθάρως가 성스러운 정 의나 거룩한 엄격성을 뜻하는 일군의 어휘들과 의미 연합을 이루고 있다. 일군의 어휘란 곧 하그노스ἀγνός-성스러운, 순결한, 깨끗한-와 하키 오스ἁγιος-귀한, 이미 신의 위엄까지도 뜻한다-호시오스ἁγιος-신에게 합당한 또는 경건한-따위다.<sup>7)</sup>

오누이가 감당해야 할 試鍊과 苦難은 禁忌를 違反한 代價요 그래서 순결함과 순수함을 필연적으로 회복해야 한다는 이른바 ‘흠의 의식’과 관련한 최초의 직관이 이 노래에 비교적 뚜렷하게 남아있다. 부정한 행위가 금기의 권위를 훼손했을 때 가해지는 징치의 양상은 신화적 문맥

6) 폴 리콤프(양명수 옮김), 『악의 상징』(3쇄), 문학과 지성사, 2002, 309쪽 참조.

7) 위의 책, 57쪽.

안에서 특별한 방식의 언어로 표현되어 최초의 인간 세상에 대한 내력을 설명하는 하나의 장치를 마련하기도 한다. 금기의 권위를 침해한 결과 가해진 징치가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양상 역시 그 하나의 사례에 해당하는 바, 이는 신화적 문맥에서 다채롭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으로 男妹婚 禁忌의 違反과 懲治의 결과가 日月의 生成이라고 하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설정에서 우리는 近親婚으로 덧씌워진 오누이의 희생적 성격에 시선을 멈출 수 있다. 인간 세상에 해와 달이 생겨나게 하고 晝夜로 교체 순환하는 질서를 온전하게 확정한 오누이에게 어찌면 남매혼이라는 윤리적 금기를 덧씌워 가한 집단의 폭력, 그 혐의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오누이의 징치가 일월생성의 내력이 된 이면에, 인간 세상에 해와 달이 있어야 하고 연속적으로 순환해야 한다는 질서에 대한 욕망이 특별한 의례를 통하여 희생양들에게 폭력을 가한 흔적은 아닐까. 해와 달의 부조화나 순환에서의 이탈은 고대인의 관념에서 두려움의 대상이니 두려움의 상황에 직면하기 이전에 이를 예방하고 질서가 영속되기를 소망하는 특별한 의례에서 희생양을 필요로 할 것인바, 이 노래에서 오누이가 바로 그 희생양의 標識를 간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 점에 着目하면 <Soarele și luna>에 오누이의 희생을 통한 일월의 생성과 순환의 영속성을 기원하는 특별한 제의적 관념이 내재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집단의 공리와 번영을 위하여 희생의 대상이 되는 존재에게는 그 집단이 부여하는 찬사가 뒤따르게 마련이다<sup>8)</sup>. 남매혼의 금기를 위반한 오누이에게 덧붙여진 찬사의 표현을 이런 관점에서 음미할 수 있을 터이다. 男妹婚에 執着한 오빠와 그에 이끌려 아내가 되어야 할 누이를 통하여 이 노래는 철저히 개

8) 집단의 폭력과 희생양의 주제에 관해서는 류성민, 희생제 의와 폭력의 종교윤리적 의미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과 르네 지라르(김진석·박무호 역), 『폭력과 성스러움』, 민음사, 1993에서 자세한 논의를 폈다.

인적인 차원의 금기 위반을 문제삼고 있는 듯 보이지만 이는 후대적 변천을 경험한 결과이다. 금기위반 따위의 흠이나 죄는 애초에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이다. 금기위반이 오누이라는 개인적 차원에서 시도되었지만, 금기위반의 최종적 결과가 해와 달의 생성으로 나타나기에 어디까지나 공동체적인 차원의 것이다. 남매혼에 연루되어 징치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오누이를 통하여 집단의 구성원 모두는 해와 달의 생성과 순조로운 순환을 획득하게 되었다. 과격하게 말하자면 오누이의 남매혼을 매개로 집단적 공범 관계가 형성된 셈이다.

남매혼 전승의 보편적 의미는 인류의 재창조와 변성에 있다 할 것인데, <Soarele și luna>에는 이런 의미가 제거되어 있다. 태양인 오빠가 인간 세상의 여인들을 찾으러 다닌 행위에서 이미 오누이의 결연은 인류의 창조라는 신화적 의미에서 벗어나 있어 당위성을 획득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오누이의 결연은 필연적으로 징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설정이 가능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들 오누이의 남매혼은 부정적 의미로 덮여질 수밖에 없다. 이런 사정이 다른 민족들의 남매혼 전승과 변별되는 점이라 할 때, 남매혼의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역할이 제거되어 버린 양상, 곧 남매혼 전승의 변천의 표지를 읽게 된다.

남매혼 성립의 신화적 당위성마저 제거되어 버린 상황에서 남매혼 금기의 위반이 가져온 결과가 일월의 생성에 잇닿아 있다면, 이 노래가 근원적으로 서로 다른 두 가지 내용을 전승하던 것들이 하나로 접합되면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남매혼의 금기 위반과 일차적인 懲治(잉어가 되게 한 것)는 유일신 ‘하느님’이라는 보편종교의 신과 연계되어 나타난 현상이고, 해와 달의 생성 내력을 오누이와 연계시켜-남매혼이든 다른 방식이든-인간 세상의 중요한 질서를 마련했다고 하는 전승이 개별적으로 지속되어왔음을 조심스럽게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런 사정이 동북아시아의 사례에서 확인된다.<sup>9)</sup>

9) 줄저, 『구비문학, 분석과 해석의 실제』, 월인, 2001, 제 4부 “전설의 비극, 창조의

## 3. 傳統的 日月 祭儀의 中世的 變遷 可能性

현재 확인되는 루마니아의 <Soarele și luna>는 일월의 생성 내력을 남매혼과 연계시켜 전승하다가 중세보편종교인 루마니아 정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급격한 단층을 보이는 대표적인 사례로 판단된다. 일월의 생성이 남매혼이라는 중세적 보편윤리를 넘어서야만 하는 부담을 받아들이면서까지 일월의 생성을 남매혼과 연계시킨 연유는 무엇인지 推察이 필요하다.

<Soarele și luna>의 내용을 나누어 검토한다. 우선 태양인 오빠가 지상의 누이동생을 찾아 다녔다고 했다. 오누이의 관계가 하늘과 땅으로 이원적 분리를 드러낸다고 하는 점에서 흔히 신화에서 일컫는 天父地母型 혹은 天男地女型의 유형에 범박하게는 포괄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월의 기원이 된 오누이의 경우, 대체로 그들은 같은 층위의 인물들로 설정되어 있어서 <Soarele și luna>의 사례와 변별적인 면이 확인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Soarele și luna>를 倒解하는 관점으로 읽어 나갈 필요를 느끼게 된다. 중세보편종교의 絕對神이 가한 懲罰이 日月의 순환이라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고 노래하는 이면에 무엇인가 감추어진 내력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의문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윤리적 금기의 위반과 긍정적 결과의 연계 양상은 이 노래를 해석하는 데에 적지 않은 난점을 제공한다.

마지막 모티프는 100-117행에 나타나는데, 이는 ‘하느님의 말씀(Logos)’ 또는 ‘신의 저주’로서 이 발라드의 가장 비중 높은 부분을 구성한다. 사실 이 부분은 발라드 <해와 달>의 내용에 대한 적합한 해석을 위한 가장 완고한 논쟁이 언급되는 부분이다. 마지막 모티프는 모든 갈등이 해소되는 단순한 양식으로서가 아니라 이 작품의 이해를 풀어주는 열쇠로서 존재한다. 한편으론 땅을 위해 꼭 필요한 천체인 태양과 달의 희생을 통한 우주 발생론적 관점을, 다른 한편으론 혈연지간의 곁혼이

---

신화”에서 남매혼 관련 사항을 검토했다.

금기시되고 있다는 사회 발생론을 위한 결정적 확증을 제시하고 있다.<sup>10)</sup>

현지에서도 이 대목에 이르러 해석상의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바,<sup>11)</sup> ‘태양신 오빠의 누이동생 결혼하기’를 태양신에게 행해지던 일종의 의례로 볼 가능성은 없겠는가 하는 점에서 추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노래의 문면에는 태양신의 일방적인 시도로 말미암아 누이동생의 희생이 나타났지만 실제의 의례에서는 태양신에게 선택된 여성을, 태양신의 신부로서 봉헌하는 의례로 이해할 수는 없을까.

종교현상의 보편성을 인정하는 차선택을 이용해서 논의를 진전시키

---

10) 김정환, 발라드 <해와 달>의 구조적 분석과 모티프, 『동유럽연구』 12권 2호, 2003, 144쪽.

11) 대표적인 기존의 해석을 두 가지 소개한다. “고대의 기층 토대로 볼 때, 이 발라드가 중세 때 이미 불려졌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근친상간을 소재로 한 노래는 성인전거나 계시록적 성격을 띤 묘사, 동화, 전설 속에서 이미 더 이상 생소한 것이 아니었다. 이 노래는 즐겁게 불려졌으며, 보다 나중에는 종교적 정신이 보다 강하게 미치는 수호성인(守護聖人)이나 네데이에(nedeie)<sup>1)</sup> 날에 우선적으로 불려졌을 것이다. 한편 이런 유형의 노래는 결혼식에서도 요구되어졌을 것인데, 이것은 남매나 인척들 사이의 결혼이 인간사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도덕률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윤리적 개념으로서의 논제였다.” Vrabie, Gh., *Baladă populară română*. București:Ed.Academiei, 1966, p.191. 김정환, 발라드 <해와 달>의 구조적 분석과 모티프, 『동유럽연구』 12권 2호, 2003, 132-133쪽에서 재인용. “서사시의 텍스트는 두 천체의 우주적 진행에 대한 직능을 다하도록 기원된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 텍스트는 근친상간이 금기시되고 있다는 일련의 가족적 구조도 설정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 잡게 된 양식이 ‘그 때(illo tempore)’로 명명된 자연법칙의 기원으로부터 그 발단이 유래된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이 기원의 경우에 있어, 세상 속의 출현은 인간 존재를 위한 운명적이고 저항할 수 없는 부정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 감성적 질서에 반(反)하는 모순된 행위의 결실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인데, 땅위에서 이루어지는 관습과 현상의 대부분은 신의 분노를 자아내는 사람들을 통한 불순한 행위나 실수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Coman, Mihai, *Sora Soarelui. Schițe pentru o frescă mitologică*. București:Ed.Albatros, 1983, p.30. 김정환, 같은 논문, 같은 곳에서 재인용.

면, 인도 벵갈 주의 콘드족에서 행해진 메리아제의는 이런 의미에서 논의의 단서가 될 만하다.

供儀는 정기적인 축제나 이상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행해졌는데, 희생자는 항상 지원자였다. ……메리아(희생자)는 마을로부터 공회 장소까지 행렬을 지어 옮겨진다. 거기서 메리아는 聖別되며…… 신과 동일시된 것처럼 보인다. 그 때문에 군중들은 메리아의 주위에 몰려와 그를 만져보려 하고 그 사람들이 그에게 바치는 존경은 숭배라고 할 정도이다.<sup>12)</sup>

위의 인용문을 통해 원초의 제의에서 바쳐진 자가 지니던 영웅성이 어떻게 부여되는가 하는 점이 확인된다. <Soarele și luna>에서 태양신과의 강제적 결연으로 인해 夫婦가 된 누이동생은 태양신에 상응하는 존재로 聖別되어야 할 것인데, 그것이 바로 태양과 달의 관계로 인식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전통이 오랜 내력을 지녀 이른바 ‘神聖婚’의 흔적을 간직한 결과가 絶對神의 懲治에도 버젓이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보는 것이다. 日月의 자연스러운 循環을 노래하던 전통적 서사적 발라드 혹은 신화를 중세보편종교가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해서, 내용상의 착종을 감수하면서까지 변천을 거듭한 노래를 전승했다고 생각한다. <Soarele și luna>의 내용을 세밀하게 분별해 보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관계가 확인된다.

太陽神 — 人間 // 男性 — 女性 // 兄 — 妹 // 夫 — 婦 // 日 — 月

神聖婚이 男妹婚이 되고 近親婚이 됨으로써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중세보편종교의 絶對神의 개입으로 형상화된 중세보편윤리의 압력을 적절한 선에서 받아들이는 결과로 이해된다. 전통적인 태양신 의례가 보편종교

12) M. 엘리야테, 이은봉 역, 『종교형태론』, 형설출판사, 379쪽.

의 위력 앞에 멈칫거릴 때에도 오랜 전승을 거둬온 노래는 적절한 타협을 통해 그 본래의 모습을 완전히 소멸시키지 아니하고 간직해 온 것이 아닌가 한다. 중세의 윤리 앞에서 男妹婚의 당사자가 되어 버린 오누이에게 여전히 다음과 같은 讚辭가 이어진다.

“아! **원죄 없는 순수한 몸**,/눈부신 나의 오빠, 남매끼리 결혼하는 일은 /이 세상에 결코 존재하지 않아.”(누이동생의 말)

“태양아, 빛나는 태양아,**원죄 없는 순수한 몸아**,/너는 천국을 보았고 또 지옥을 보았는데/너의 생각은 너에게 뭐라고 말하느냐?”(절대신의 말)

“너, 일레아나 코스제아나야,**흠 하나 없이 순수한 영혼아**, 그리고 너, 빛나는 태양아,**원죄 없는 순수한 몸아**! 두 눈으로 보아라,/너희들이 항상 떨어져 있는 것을.”(절대신의 말)

원죄도 없고 순수한 몸과 영혼을 지닌 존재로 讚辭가 이어지는 男妹婚 禁忌의 違反者 오누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심지어 그들을 징치하는 절대신조차도 그들에게 흠결없고 순수하고 죄가 없는 몸과 영혼을 지녔다고 했다. 보편윤리를 위반한 오누이에게 찬사를 덧붙여주는 주체는 누구인가. 바로 이 노래를 전승해오던 루마니아 민족들이 아니겠는가. 성스러운 태양 의례와 聖別되었던 女性에 대한 그들의 기억은 여전하다.

#### IV. <Soarele și luna>를 통해서 東北亞 <男妹日月起源傳承> 類型 읽기

루마니아의 <Soarele și luna>는 남매혼과 일월의 생성이라는 측면에

서 동북아시아의 관련 전승과 전주어 살필 단서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경우는 널리 알려진 <해와 달이 된 오누이>가 전승된다.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다.<sup>13)</sup>

- ① (上略)
- ② 호랑이가 막내인 찢먹이를 잡아먹었다.
- ③ 오누이가 그 광경을 보고 나무 위로 올라갔다.
- ④ 호랑이가 올라가는 방법을 물으니 누이동생이 실수를 하여 위기에 처했다.
- ⑤ 오누이가 하늘에 기원하여 동아줄을 타고 올라갔다.
- ⑥ 호랑이가 썩은 동아줄을 타고 올라가다 떨어져 죽었다.
- ⑦ 하느님이 오누이에게 해와 달이 되어 일을 하라고 명했다.
- ⑧ 누이동생이 달이 되어 밤에 다니기가 무서워 오라버니에게 바꾸자고 했다.
- ⑨ 오라버니가 승낙하여 누이동생이 해가 되었다.
- ⑩ 누이동생은 사람들이 쳐다보아 부끄러워 강렬한 빛을 내어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하게 했다.

<Soarele și luna>나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가장 큰 공통점은 어머니의 不在와 日月의 不在 현상이다. 어머니의 不在는 오누이만의 일종의 '隔離'을 초래한다. 日月의 不在는 태초의 시절로 회귀한 양상이다. 인류의 대홍수가 있어서 인류가 모두 사라지고 오누이만 남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혹은 신의 뜻을 얻은 후에 남매혼을 성립시키는 상황과 꽤나 近似한 측면이 있다. 전자는 일월의 기원이 되었고, 후자는 인류의 시조 노릇을 한 점이 다를 뿐이다. <Soarele și luna>에서 태양만 존재하고 달이 부재하던 시절, 오누이의 결연은 인류의 새로운 시작과 연계될 수도 있었겠지만 일월의 생성 내력을 설명하는 것으로만 그쳤다. 아래에 滿族 資料를 하나든다.

---

13) 孫晉泰, 『朝鮮民族說話의 研究』, 乙酉文化社, 1947, 155-157쪽.

<太陽和月亮的來歷(태양과 달의 내력)><sup>14)</sup>

- ① 아득한 옛날에 하늘에는 해와 달도 없었고 지상에는 칠혹같이 어두워 하늘과 땅을 나누어 말할 수 없었으며, 사람의 두 눈으로 어느 것을 보아도 보이지 않았다.
- ② 사람들 가운데 親 兄아가 있었는데, 사람들을 위하여 광명을 찾기로 결심하고 고난을 이기고 西天의 佛祖에게로 찾아갔다.
- ③ 佛祖는 兄아에게 초롱등불(燈籠) 하나와 날아다니는 신발(飛鞋) 한 켤레를 주었다.
- ④ 누이동생이 飛鞋를 신고 날아다니는 듯 다니자 오빠는 아무리 해도 쫓아가지 못하고 누이동생을 찾는 소리만 질러댔다.
- ⑥ 그 소리가 佛祖에게 전해졌는데, 佛祖가 오빠에게 거울 하나를 보내주었다.
- ⑦ 오빠가 거울을 비추면 누이동생의 그림자가 나타나 쫓아갈 수 있었다.
- ⑧ 그 시절에는 사람들이 옷을 전혀 입지 않았기에 거울 속에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났다.
- ⑨ 누이동생이 부끄러워 고개를 돌려 앞에서 달아나면 오빠가 뒤에서 쫓아가고 하면서 둘은 하늘로 올라갔다.
- ⑩ 누이동생의 손에 있던 등불은 태양이 되고, 오빠의 손에 있던 거울은 달이 되었다.

위의 신화에는 남매혼의 標識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중국 내 소수민족들 사이에 빈번하게 확인되는 남매혼 전승 가운데 남매혼 성립의 요건으로 오라버니가 누이동생을 뒤쫓아 가는 방식을 설정한 것이 있다. 누이동생은 오라버니로 하여금 자신을 쫓아오게 하고 자신이 잡히면 결혼을 하겠다는 것이 남매혼 성립의 요건인 셈이다. 동생은 산이나 나무를 돌아서 달렸는데 오라버니는 누이동생을 따라잡지 못했다. 그런데 오라버니가 거북이나 다른 동물의 계시에 반대 방향으로 쫓았더니 누이동생을 따라잡았으며 둘은 결혼하여 인류를 다시 잇게 하였다는 것이 그

14) 張其卓·董明 整理, 『滿族三老人故事集』, 春風文藝出版社, 1984, 11-12쪽.

대강의 내용이다.<sup>15)</sup> 滿族의 전승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오라버니가 누이 동생을 쫓아가는 행위는 男妹婚의 痕迹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하사크(哈薩克) 족의 신화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전한다.

두 명의 男女가 있었는데 이름을 阿娼阿塔과 阿娼阿娜라 했다. 魔鬼가 그들의 결혼을 방해하는 바람에 그들은 하늘로 올라갔는데, 남자는 해가 되고 여자는 달이 되었다. 지금도 서로를 찾으러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만날 수 없으니 항상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린다. 그 눈물은 바로 눈과 비이다.<sup>16)</sup>

오라버니의 누이동생 따라잡기와 일월의 생성이 한 곳에 묶여 나타나는 양상을 남매혼의 결과 인류의 새로운 시작과 일월의 생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가능성으로 남겨두면서 차후 일 반론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오누이 가운데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찾아다니는 양상이 한국의 사례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오누이가 日月이 되어 천상에서 그저 놀고먹을 수 없으니 끊임없이 순환하는 것으로 노동을 대신했다고 하는 설정은 일월의 순환을 달리 설명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볼 수밖에 없겠다. 오누이가 일월생성의 기원이 된 설정은 다른 방식으로도 전승된다. 손진태의 채록 자료 등을 아래에 간략하게 소개한다.

### 【1】

- ① 옛날 하늘님에게 두 오누이가 있었다.
- ② 오빠는 해가 되고 누이동생은 달이 되었다.
- ③ 누이동생이 오빠에게 달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 싫다고 하

15) 陶陽·鍾秀, 『中國創世神話』, 上海人民出版社, 1987, 240쪽.

16) 위의 책, 193쪽. 이 자료에서 남녀는 오누이의 관계에서 변천을 경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특히 남녀의 이름에서 들은 오누이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면서 일월을 바꾸자고 했다.

- ④ 오빠는 해가 남자의 기상이라며 반대하고 누이동생의 눈을 굴뚝으로 찌르고 으깨 버렸다.
- ⑤ 오빠가 누이동생을 불쌍하게 여겨 해를 양보하고 자신은 달이 되었다.

**【2】**

- ① 옛날 두 오누이를 둔 어머니가 있었다.
- ② 오누이는 사이가 나빠 늘 싸움만 했다.
- ③ 오빠가 동생의 눈을 침으로 찔러 죽였다.
- ④ 어머니는 오빠를 감금하여 굶겨 죽였다.
- ⑤ 그 후 동생은 해가 되고 오빠는 달이 되었다.
- ⑥ 동생은 침으로 눈을 찔렸기 때문에 지금도 센 빛을 발하고, 사람들의 눈을 눈부시게 한다.<sup>17)</sup>

전자는 친신의 자녀로 설정되어 일월의 기원이 된 연유가 자연스럽게 해명될 수 있게 했다. 후자는 예사 사람의 자녀였다가 해와 달이 된 내력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두 자료에서 우리는 男妹婚을 감행한 오누이에서 가장 극단적인 대척점에서 있는 오누이를 만나게 된다. 금기를 넘어서는 결합과 극단적인 대립 사이의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의 天照大神과 月讀命의 관계가 다시 관심을 끈다. 전자는 太陽神이고 후자는 月神이다. 이 둘은 각각 伊奘諾尊의 三貴子 가운데 두 神인데, 각각 낮과 밤을 맡아 다스린 연유가 흥미롭다. 아래에 해당 부분을 제시한다.

伊奘諾尊은 세 주(柱)의 자신(子神)에 칙명(勅命)하여, “天照大神은 高天原을 다스려라. 月夜見尊은 해의 신과 나란히 하늘을 다스려라. 素戔嗚尊은 青海原을 다스려라”고 하였다. 이미 天照大神은 천상에 있어서, “위원중국(葦原中國)[아시하라노나가쓰구니]에 보식신(保食神)[우게 모치노가미(食物)을 주재하는 신]이 있다고 듣고 있다. 月夜見尊, 네가

17) 손진태, 『한국 민화에 대하여』(김현선 외 共譯), 역락, 2000, 21쪽.

가서 보고 오너라.”고 하였다. 그래서 月夜見尊은 그 칙명을 받고 지상에 내려와 드디어 保食神이 있는 곳에 도착하였다. 그랬더니 保食神이 머리를 돌려 甍[國]으로 향하니 입에서 밥이 나왔다. 또 바다[海]로 향하니 지느러미[鱗]가 넓은 것, 좁은 것(大小의 漁獲物)들이 입에서 나온다. 또 산으로 향하니, 털이 거친 것, 털이 부드러운 것이 또 입에서 나온다. 그 여러 가지 물건을 다 갖추어서, 백개(百箇)나 될 많은 것을 책상 위에 쌓아 올려놓고 대접하였다. 이 때 月夜見尊은 노하여 얼굴을 붉히며, “참으로 더럽고도 천하구나. 이 나를 대접하는 데 어찌하여 입에서 토한 것을 쓰느냐”하고 칼을 빼어 죽여 버렸다. 그리고 나서 자세히 그 상황을 天照大神에게 보고하였다. 天照大神은 그 말을 듣고 크게 화를 내면서, “너는 악한 神이다. 다시 너를 만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月夜見尊과 일일일야(一日一夜)동안 떨어져 살았다.<sup>18)</sup>

三貴子 가운데 둘이 父神이자 絶對神인 伊奘諾尊의 명에 의하여 日神과 月神이 되었는데, 월독명(月讀命/月夜見尊)의 행위로 인하여 日神과 月神이 각기 만나지 못한 결과 일월의 순환이 생겨났다고 하는 신화적 발상을 드러낸다. 앞의 자료와 견주어 보면, 일월이 된 두 신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어느 정도 표면에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서 月讀命은 여신인가, 남신인가. 요시다 아즈히코는 여신으로 확정하고 논의를 전개하지만<sup>19)</sup> 여신이라는 명확한 증거는 찾기 어렵다.<sup>20)</sup> 우리가 주목할 점은 天照大神이나 月讀命 모두 地上 出處의 神들이라는 점인데,<sup>21)</sup> 인간 세상의 오누이가 천상의 일월이 된 사정과 상통하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伊奘諾尊라는 절대신이 있어 자신의 삼귀자 가운데

18) 『日本書紀』 第十一의 一書.

19) 요시다 아즈히코, 『일본의 신화』, 양역관 옮김, 황금부엉이, 2005, 19-20쪽.

20) 天照大神과 月讀命을 姉妹神으로 확정하려는 것은 오바야시에 의해 제기된 남방신화 영향론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오바야시와 요시다 교수의 신화 사전에 보면 월독명은 남성신으로 표기하고 있다. 김화경 선생님께 紙面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1) 김화경, 『일본의 신화』, 문학과지성사, 2003, 82-83쪽 참조.

들에게 일월의 신이 되도록 하는 설정은 신의 개입과 姉妹 혹은 姉弟의 日月起源이라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sup>22)</sup>

그런데 “오누이 간의 대립”을 설정해 놓은 이면적 의미를 거듭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남매혼의 금기를 넘어서면서까지 누이동생에게 다가섰던,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함께 생존하려했던 오라버니가 누이동생의 요구와 행위에 극단적인 대응을 한 사정을 통해, 동일한 결과를 놓고 전혀 상반되는 원인이 개재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굴뚝과 침으로 누이동생의 눈을 찔러 으깨어 버린 오라버니, 누이동생을 危害한 대가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오라버니의 행적에서 우리는 오누이 사이를 격리시키려는 일종의 폭력을 감지하게 된다. 남매혼의 금기를 지속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방편일 가능성을 제기해 보는 것이다. 天照大神과 月夜見尊의 관계 역시 대립의 결과 일월의 순환이 생겨났다고 했는데, 중요한 점은 天照大神에 의해 악한 신으로 규정되어 버린 月夜見尊이 素戔鳴尊와 달리 더 이상 신적인 행위를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사라져 버린다는 데에 있다.<sup>23)</sup>

<Soarele și luna>나 <해와 달이 된 오누이>, 그리고 <太陽和月亮的來歷>에서 神이 등장하고 오누이가 등장하는 설정은 공통적이다. 이 점은 관련 유형 전승을 하나의 틀로 엮어 내는 데에 있어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일월의 생성과 순환의 내력이 신화인

22) 만족의 경우에 姉妹가 일월의 생성과 직결되어 있는 사례가 있다. “천신은 그의 두 딸에게 그들이 만든 구리 거울을 가지고 하늘에 가서 인간 세상에 따뜻함을 보내라고 명령하였다. 언니의 거울에 화염이 나와 해가 되었고 동생의 거울에는 누런빛이 나와 달이 되었다.”(陶陽·鍾秀, 앞의 책, 189-190쪽) 논자는 <자매의 일월 생성>에 둘 사이의 대립이 대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추정하는 바, 다른 자료들을 포괄하여 그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23) 황쾌강, 『일본신화의 연구』, 지식산업사, 1996, 90쪽에는 “月讀命의 성격은 뚜렷하지 않다. … 原神話는 아마도 天照와 須佐의 二分體制의 대립관계로 전개하고, 月讀命은 아예 배제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진술한다. 이런 사정의 이면에 일월의 생성과 순환을 확정지은 두 神, 곧 오누이를 격리시키려는 특별한 의도가 개입한 것으로 볼 여지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점이 분명하다면 더욱 그렇지 않겠는가. 몽골의 메드얼(麥德爾) 전승 하나를 보기로 한다.

말뚝굽이 물에 닿자 불빛이 일어나고, 우주의 공기와 흙이 타버리게 되자 일시에 우주가 정돈되고 불꽃이 타올랐다. 수증기가 변하여 운체가 되고 불꽃이 하늘에 이르러 못별이 되었다. 하늘의 불이 더욱 타서 점점 커지자 우주의 공기와 흙이 수면 위에 떨어져 더욱 쌓여 두꺼워지면서 점차 대지가 형성되었다. 메드얼(麥德爾)은 神龜를 보내어 대지를 짚어지게 하고, 男神(해)과 女神(달)을 보내어 수미보산(須彌寶山) 주위를 돌게 하여, 대지 위의 인류에게 광명을 주었다.<sup>24)</sup>

創世의 女神 메드얼이 日月의 生成을 下位神인 男女神을 통해 구현했다. 日本의 사례가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을 보인다. 여기에서 우리는 日月生成의 起源과 下位神과의 관계를 상정할 필요를 느낀다. 日月의 生成과 循環이 創世의 時節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것이 周知의 사실이라면 創世의 絶對神과 下位神과의 관계 및 日月의 生成은 크게 齟齬하지 않은 것이다.

## V. 마무리: 포괄적 검토와 가설적 체계

<해와 달이 된 오누이>형 전승은 전승집단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신의 분명한 개입과 명에 의한 일월의 생성과 순환은 신화의 오롯한 면모를 드러내는 데에 부족함이 없었다. 신화에서 민담적 성격을 받아들이면서 다채로운 변이가 다양한 측면에서 일어나서 일월의 생성에 관한 다층적인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 놓을 수 있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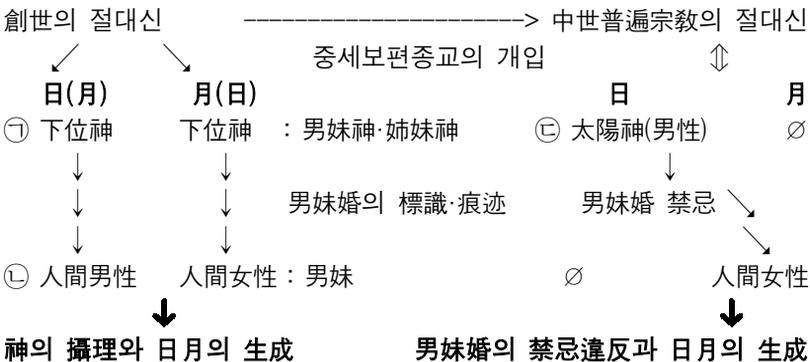
검토의 결과 <해와 달이 된 오누이>형 전승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24) 陶陽·鍾秀, 앞의 책, 99쪽와 157-158쪽에 그 내용이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다.

있는 사변적인 체계 하나쯤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채로운 자료의 양상들을 공식적으로 대등한 위치에 놓고 사변적 체계를 설정하는 과정은, 대상 자료를 확대하고 수정함으로써 설화 특정 유형의 비교론을 전개하는 데에 중요한 관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루마니아의 <Soarele și luna>에 중세보편종교의 絶對神이 개입할 수 있는 위치는 본래의 <오누이 일월기원 전승>에서 등장하던 絶對神이 자리하고 있던 곳으로 볼 개연성이 적지 않다. 남매혼을 용인하면서 일월의 순환을 가능케 했던 이전의 전승이, 보편종교의 절대신의 개입으로 인하여 오누이의 일월기원을 남매혼의 금기로 속박하고, 금기 위반의 결과 징치의 양상으로 일월의 순환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는 착종된 논리를 제공하게 된 것으로 보고자 한다. 앞서 제시한 하사크(哈薩克) 족의 전승에서 阿娣阿塔과 阿娣阿娜의 결혼을 방해하고 이들이 일월이 되어 끊임없이 서로를 찾아다니게 만든, 魔鬼로 표현한 이 존재가 저 루마니아의 <Soarele și luna>의 절대신과 기능적 측면에서 근사한 점이 인정된다. 중세보편종교의 절대신의 개입으로 착종된 결과가, 魔鬼라고 하는 부정적 관념을 띤 존재가 개입하게 되면 착종된 결과를 넘어설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런 해석을 근거로 하여 잠정적 결론을 내려보면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간단히 제시될 수 있다.



- ㉠ : <天照大神과 月讀命> / <메드얼(麥德爾)> / <해와 달이 된 오누이②>
- ㉡ : <太陽和月亮的來歷(滿族)> / <阿娣阿塔과 阿娣阿娜(哈薩克族)> / <해와 달이 된 오누이①>
- ㉢ : <Soarele și luna>

일월의 생성과 순환에 관한 내용은 분명 창세신화의 중요한 에피소드 가운데 하나일진대, 신의 층위와 인간의 층위가 공존하는 양상은 전자에서 후자로의 변천을 경험한 증거일 수 있고, 두 양상이 선후의 변천과 특별한 관련을 가지 않고 개별적으로 형성되었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 해당 유형의 다양한 각편들을 포괄하면서 효과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려 판단할 일이다.

<오누이 일월기원 전승>과 <남녀신 일월기원 전승>을 견주어 보면, 둘 사이의 변별적 요소가 하나 발견된다. 신의 명령에 의한 남녀신의 일월기원은 그것 자체로 창세신화다운 설정이라 하겠으나 인간 세상의 오누이가 일월이 되어 遭遇하지 못하는 것이 일월의 순환과 연계되어 있는 점은 오누이 사이의 근친혼을 막아서고 남매혼의 금기를 지속시키기 위한 설화적 발상으로 해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남매혼의 성립으로 인한 인류의 새로운 기원 혹은 일월의 생성과 순환이라는 신화적 창조행위가 전설의 비극으로 좌절을 경험하기 직전에<sup>25)</sup> 남매혼의 標識를 은폐하면서 남매혼의 금기를 지속시키는 방식을 택한 것이 <오누이 일월기원 전승>의 형태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그 하나가 “오라버니의 누이동생 따라잡기”로 판단되고 다른 하나는 “오누이의 대립”이라 생각한다.

주제어 : 해와 달이 된 오누이, 해와 달의 유래(Soarele și luna), 남매 일월기원전승(男妹日月起源傳承), 태양화월량적내력(太陽和月亮的來歷)

25) <달래강(달래고개) 전설>이 이에 해당한다.

## 참고문헌

『日本書紀』

김정환, 「발라드 <해와 달>의 구조적 분석과 모티프」, 『동유럽연구』 12권 2호, 2003. 129-151쪽.

김화경, 『일본의 신화』, 문학과지성사, 2003.

류성민, 「희생제의와 폭력의 종교윤리적 의미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박종성, 『구비문학, 분석과 해석의 실제』, 월인, 2001.

\_\_\_\_\_, 『한국창세서사시연구』, 태학사, 1999.

손진태, 『朝鮮民族說話의 研究』, 乙酉文化社, 1947.

\_\_\_\_\_, 김현선 외 共譯, 『한국 민화에 대하여』, 역락, 2000.

황패강, 『일본신화의 연구』, 지식산업사, 1996.

陶陽·鍾秀, 『中國創世神話』, 上海人民出版社, 1987,

요시다 아츠히코, 양역관 옮김, 『일본의 신화』, 황금부엉이, 2005.

張其卓·董明 整理, 『滿族三老人故事集』, 春風文藝出版社, 1984,

적송지성·추엽음 『朝鮮巫俗의 研究』(上), 조선총독부, 1937.

폴 리코르, 양명수 옮김, 『악의 상징』(3쇄), 문학과 지성사, 2002.

Coman, Mihai, *Sora Soarelui. Schițe pentru o frescă mitologică.*  
București:Ed.Albatros, 1983.

M. 엘리야데, 이은봉 역, 『종교형태론』, 형설출판사, 1982.

<Abstract>

A Comparative Reading on  
A Types of *Brother and Sister Who become  
Sun and Moon*

- From Romania to North-East Asia, and to Korea-

Park. Jong-Seong

A Romanian narrative Ballad *Soarele și luna* seems to be a very precious text for studying co-related aspects from *The Marriage of Brother and Sister in Oral tradition*과 *The Origin of Sun and Moon in Oral tradition* because this text contains not only stories of marriage between brother and sister but also those of origins of Sun and Moon. It is necessary to be dealt with very careful attention on the fact that the result of violating taboo of 'marriage between brother and sister' appears as an 'alternation of Sun and Moon', and this article tries an in depth interpretations on that aspect. Arguments started from Romanian *Soarele și luna* present a useful viewpoints for comprehensive examination of interrelated texts of minority peoples from Korea and China. In that regards, in this article, the possibilities of combination between *The Marriage of brother and sister* and *The Origin of Sun and Moon* are widely discussed and tried to find out materials which are expected to have a high probability of that kind.

It is quite probable that the way of intervening God of medieval times at the Romanian ballad *Soarele și luna* is to be recognized similar to the way of intervening God from *The Origin of Sun and*

*Moon from Brother and Sister in Oral tradition.* I believe that the former transmission which admitted 'marriage between brother and sister', and eventually permitted the 'alternation of Sun and Moon' was transformed, by intervention of God, into a mixed logic which explains that the 'alternation of Sun and Moon' was a kind of punishment by making that kind of marriage as a taboo. From the transmission of 哈薩克 tribe, an existence, described as an evil spirit, who obstructed the marriage between 阿娣阿塔 and 阿娣阿娜 and transformed them into Sun and Moon, and eventually made them to search around each other forever, seems to have a similar function of God from the Romanian ballad *Soarele și luna*. When a mixed result made by the intervention of the unique God from the medieval religion meets a very negative existence of evil spirit, this would make another results.

Key Words : Romania, Coreea, minorities peoples in China, *Soarele și luna*, *The Wedding of Brother and Sister in Oral tradition*, *The Origin of Sun and Moon in Oral tradition*, Universal religion of medieval times